

Issue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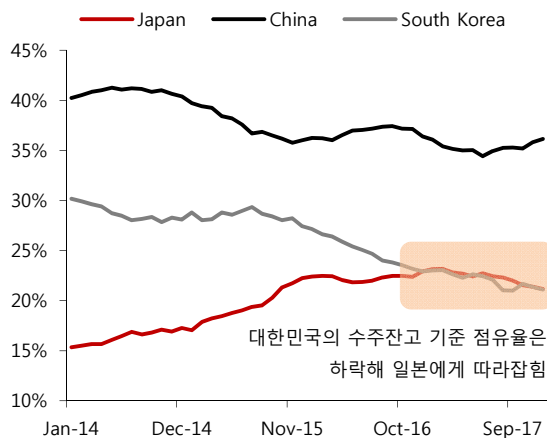
- ✓ 수주잔고 기준 일본 조선사의 M/S는 한국과 유사한 21.2%
- ✓ 일본 조선사들 수주잔고의 29.3%를 차지하는 벌커
- ✓ 한국 조선사의 벌커 수주잔고는 87 만 CGT에 불과함

벌커 수주로 대한민국을 추격하는 일본 조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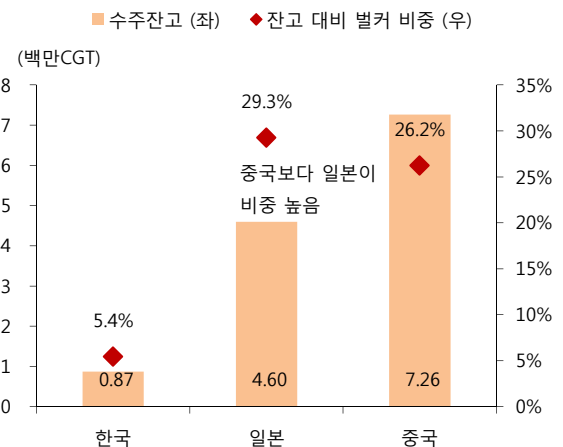
2017년 12월의 수주잔고(CGТ) 기준으로 한국, 중국, 일본 조선사들의 전 세계 선박 시장 점유율을 계산해보면 한국 조선사들이 21.1%, 일본 조선사들이 21.2%, 중국 조선사들이 36.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해 2017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일본 조선사들의 약진은 벌커 수주 때문이다. 2017년 12월 기준 일본 조선사들 수주잔고의 29.3%는 벌커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벌커 강자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26.2%를 상회하는 수치다. 물론 절대 수주량 기준으로는 중국 조선사가 726만 CGT로 일본의 460만 CGT를 앞선다. 그러나 벌커는 중국 조선사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2000년대 후반부터 독주해왔음을 감안하면 일본의 최근 벌커 수주량은 놀랍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용선료가 낮아 발주가 뜸했던 LNG 탱커 등 상대적으로 비싼 선종의 수주에 주력한 나머지 벌커 수주잔고는 87만 CGT에 그쳐 일본에게 점유율을 내줬다. 게다가 벌커 신조선가 지수는 2016년 8월 저점(110) 대비 2017년 11월까지 약 7.8% 상승해(119) 일본 조선사들의 벌커 수주량 증가는 유의미하다는 판단이다.

대한민국 조선소의 수주잔고 기준 M/S는 일본과 같아짐



일본의 M/S 추격은 벌커 수주량 때문임



자료 :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자료 : Clarksons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